

주일 1부 예배 1. Haupt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2:00	교육관 지하 Bildungsraum UG
주일 2부 예배 2. Haupt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2:55	본당 Philippuskirche
영유치부 예배 Kleinkinder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교육관 2층 Bildungsraum 2. OG
아동부 예배 Schulkinder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교육관 1층 Bildungsraum EG
청소년부 & HCI 예배 Jugend- & HCI-Gottesdienst	매 주일 jeden Sonntag	13:00	Gemeindesaal
청년부 예배 Gottesdienst f. junge Erwachsene	월 마지막 주일 jeden letzten So. im Monat	14:30	본당 Philippuskirche
금요 비전예배 Freitagsgottesdienst	매 금요일 jeden Freitag	19:00	Gemeindesaal

	대표기도	성경봉독	봉헌위원	봉헌특송
8월 23일	김예솔	최현민	순6	송호연-이재원가정
8월 30일	Timo Burghaus	오예준	순6	케냐 비전트립팀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9월 6일
순5 이은혜	봉사부	순6 육은선	순7 최유미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구제헌금	특별헌금	기타	건축헌금누계
474,99	1880,00	935,00	300,00	0,00	0,00	0,00	791.071,65

- * 표는 일어서서

금요 비전예배 Freitagsgottesdienst	
경배 찬양 Lobpreis	금요예배 찬양팀 Lobpreisteam für Freitagsgottesdienste
성경봉독 Schriftlesung	고린도후서 8:1-9 2 Kor. 8,1-9
설교 Predigt	성도 섬기는 일 양수민 전도사 Den Glaubensgeschwistern dienen Vikar S. M. Yang
기도회 Gebetsstunde	다함께 인도: 양수민 전도사 Gemeinsam Leitung: Vikar S. M. Yang
지난 주일 설교 말씀 Predigt des letzten Sonntags	
[가족,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야고보서 1:19-20)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가장 멀어질까요? 문제는 단순히 대화의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잘 듣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심지어 죄를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원망과 실패를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받아 주셨습니다. 공감은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하나님처럼 오래 참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또 그랬니?” “몇 번을 말해야 하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죄보다 회복을 원하십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야단과 부끄러움을 주는 방식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가르치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처럼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 성급하게 답을 주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걸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듯이 자녀를 기다려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셨듯이 사랑 안에서 자녀를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Bekanntmachungen		
❖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최용준 목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예배부 8월 한 달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패밀리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 선교부 오는 8월 18일(화)부터 25일(화)까지 1주일간 케냐 비전트립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현지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사역 & 행사 Kirchliche Arbeit & Veranstaltungen in August		
18-25일	여름선교비전트립	
22일	순장반모임	
30일	임원회	
8월의 기도 제목 Gebetsanliegen des Monats		
❖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표어 아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며 모든 공예배(주일, 금요)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항상 충만하여 예배를 실패하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컴패션과 함께하는 케냐 비전트립이 8월18~25일까지 진행됩니다. 담임목사 포함 총 13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비전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HCI를 섬겨주실 복음적이며 쾰른과 독일의 선교적 비전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종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교회가 주일과 금요예배 뿐 아니라 교육부 모임과 주중 모임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합니다.		
새가족 안내 Für neue Gemeindemitglieder		
❖ 오늘 쾰른한빛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교육관에서 담임목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예배 후 출구 안내 쪽으로 나오시면 새가족부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쾰른한빛교회 정관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치시어 등록교인이 되신 후 1년이 지나면 정회원이 되십니다.		